

출가정신 훼손 등 '득보다 실' 많아

2003년 9월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입법화된 40세 출가연령제한의 가장 큰 목적은 출가자의 자질향상이었다. 당시 연령제한 도입을 주장한 이들은 "일부 고령 출가자들이 수행풍토를 어지럽히는 등 대중생활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종법 개정을 통해 고령 출가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육원 실무자들과 기초·기분교육 관계자들의 의견도 대부분 출가연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아졌었다.

그러나 시행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풀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출가자 연령 제한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출가 지원의 감소였다. 대신 같은 시기 타종단의 출가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 유력 인사나 전문직 고급 자원은 조계종으로 출가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발심자의 출가를 제한한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 출가연령제한 왜 없애나

출가인원 줄고 고급인력 타종단 선택 늘어 "법계·승가교육체계 정착... 부작용 적다" 공감

3월 9일 열린 교육원회의는 법계정착과 관련해 △40세 연령제한 고수, 연령 초과자는 심사 후 선별 출가 허용 △50세 연령제한 환원, 연령 초과자는 심사 후 선별 출가 허용 △연령제한 완전 폐지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총무원 관계자는 세 번째 완전폐지를 주장한데 반해, 일부 스님은 현행 40세 제한 고수를 주장하는 등 이날 회의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인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40세 이상 출가자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종단의 자신감도 한몫했다. 교육원도 종단의 법계·승가교육체계가 정착된 만큼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정도의 고령행자는 사실상 행차교육원에서 다 걸러지고 있고, 기초, 기본, 전문 교육과정 이수 후, 5·4·3급 승가고시를 통해 승가의 위계를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고령출가자가 이전처럼 승가사

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날 폐지 반대를 주장한 쪽도 시행 18개월 밖에 안 된 법을 다시 손댄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원회의가 제도폐지결정을 내린 것은 더 이상 종단 구성원들과 사회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종회 교육분과위 본과 스님은 "더 이상 출가제한의 명분이 없으며, 이왕 풀 것이라면 3월 임시총회에서라도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승가교육의 질'이 하락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기존 스님들과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교육체계를 만드는 등 종단 차원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한국 학자들 간다라 유물 50여점 발굴

간다라 불교미술의 보고 파키스탄 탁실라 지역에서 불상 50여 점과 탑원지·스원지가 발굴됐다. 탑원지·승원지 발굴은 근래에 없던 일인데다 한국 발굴팀이 일군 성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태) 발굴팀은 1월 28일부터 2월 23일까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인근 탁실라(Taxila) 세계문화유산의 사원지에서 부조상을 포함한 불

상 50여점과 동전·못 등의 금속품, 토기 등 300여점을 발굴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발굴팀이 발굴한 지역은 가로·세로 300m 크기의 절터로, 승원지와 탑원지로 구성돼 있다. 탑원지가 승원지보다 한 단 아래에 위치하며 계단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불상이 다수 발굴된 지역은 탑원지의 탑 주변으로, 머리까지 있는 불상 3위와 머리가 떨어진 불상 12위 등 50여 위의 불상이 발견

됐다. 불상 가운데는 최초의 불상에 후대에 다시 회를 발라 부조한 2중 기법의 불상도 발견돼 간다라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발굴팀은 동전이 초기 쿠산시대인 1세기 것이고, 승방지와 주탑의 벽면 구조가 1~2세기에 유행한 것이며 초기의 힘찬 기법으로 조성된 2중구조의 불상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1~3세기에 조성된, 이른 시기의 사원으로 추정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2000여년 만에 빛을 본 '간다라의 미소'. 석회와 모래 등을 섞어 빚어진 소상(塑像)·스투코이다.

올해 초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대대적 행정조직 개편을 놓고 학교 인פק에서 말들이 많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개학부와 유관 특수대학원을 통합한 부분. 이에 따라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도 구 중앙도서관 2층에 함께 자리를 잡았다. 동국대의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

기대했던 경쟁력 강화나 신입생 유치 확대는 고사하고 겸임 보직으로 늘어난 업무 하중 때문에 대학원 부실과 행정력의 감소만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시행초기의 혼란과 불안감일 뿐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직은 이번 시도의 성

3월 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특히 올해는 여성계 최대속원 사업이던 호주제 폐지와 시기를 같이 해 더욱 뜻 깊었다.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1985년부터 이 날을 기념하며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런 축 제 분위기를 불교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라 할 수 있는 한국여성불자연합회와 불교여성개발원 등은 아무런 행사 없이 이날을 보냈다. 한국불교에서 여성불자들이 갖는 위치가 상당한데도 불교계 내부의 의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간 호주제 폐지와 여성권의 신장을 위해 공동연대활동을 펼쳐온 불

교계 여성단체들이기에 이 같은 무덤덤함은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불교 여성단체가 사회현안에 소극적인 이유는 단체 내부 체계를 정비하려는 외부로 시야를 돌릴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비 지원금의 한계, 만성적인 인력부족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가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 불자의 권익신장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여성 불자들, 더 크게는 사회 속의 여성들에 대한 불교계 여성단체의 체계적 접근과 구체적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불교계의 내실 다지기 여성 불자의 참여영역을 넓히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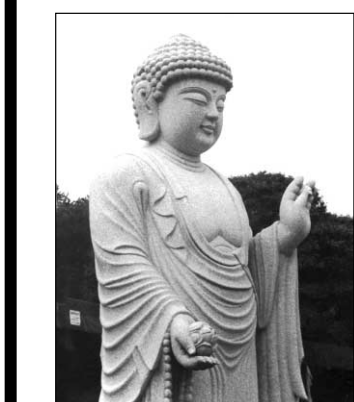
말 많은 동국대 조직 개편

공여부를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변화가 더딘 대학사회를 바꾸어 보려는 노력은 분명 가치가 있어 보인다.

제야무리 훌륭한 정책도 구성원들의 합의가 힘들다. 타 대학의 실패사례가 주는 교훈을 동국대는 왜 좀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는지 답답하다.

이런 시도의 성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문화 답사 학과 개설 (3년과정)

- 교과목
 - 한국불교문화 I (불교미술중심)
 - 한국민속문화 I (지역별전통문화)
 - 한국불교문화 II (인물, 사상, 신앙)
 - 한국유교문화 I (궁궐, 서원, 종묘)
 - 해외불교유적 I (중국, 티베트)
 - 해외불교유적 II (인도, 동남아시아)
- 교수진
 - 김상현교수(동국대) · 김상영교수(승가대)
 - 윤열수(문화재단전문위원) · 김방용(원광대학교수)
 - 남성훈교수(전 전남대)
- 개강

2005년 4월 6일(수) 오후 7시(매주수요일)
- 불교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한 전문 교육과 매일 현장답사교육으로 불교 및 전통문화 해설사 양성을 목표로함.

동산 풍물반 개설 (1년과정)

- 우리교유의 전통인 풍물 사물을 중심으로 한 영남 농악, 소북, 그리고 범고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풍물반을 개설합니다.
- 교과목

풍물(사물)반	북, 장구, 징, 행랑리도 구성된 영남농악
오전 11시	
소북·범고반	북과 범고를 위한 교육강좌
오후 2시	
- 강사 · 신유진 원장
- 개강

2005년 3월 20일(일) 오전 11시 (매주일요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